

됐고

글, 곡 김성만

♩ = 102

C#m B E/G# A F#m A G#sus4/D# G#

아 따 참말로 요거 이뭐 다요- 뭇 땀 시 우덜 한- 테 요래 한- 다요

B A E/G# C#m D A/C# E/B G#

우리가 겁 나게 많은 것- 을 요구하는 줄 알 것 소 우 짜고 것하- 나 못들어 준다요

C#m B E/G# A F#m A G#

웁 때 시방 요것 을 줄 라고- 싸갈 탕- 이 없 는 것- 들 좀 보 소

B A E/G# C#m G#7 C#m G#7 C#m

존 말할- 때 한 번 움 직여보 시오 우 덜 도 사 람인- 게 그라 고히 지 마 소

C#m A B G#7

됐고 됐 다 구요 겁 나 허벌나 게 거 시기하 네 요
아 따 살다봉 께 징 하디징 하 요

A B C#m E F#m A G#

우덜 쪼깐 헐하 게보 지 마 소 그라 - 고 참을 만- 큼 참 았 소
오메 잡것 낮바 닥- 좀 보 소 맥없 - 이 뽀끔 뽀- 끄 뭇 한다 요

C#m Aadd9 B G#7

됐고 됐 단 게여 한 번 해볼 란- 가 요
뭇 시 씨부 린- 다 냐

A B C#m A F#m G# C#m G# C#m

시방 꺼정 참 고참- 았 승 께 췌 퐁빠- 진 소리 말 고 찌그 러 지 시오-
개운 허게 거 시기하 쇼 잉 - 챔 기름 처 럼 꼬 신 시 상 시나브로 잡 시다-